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NOV 24, 2023 - JAN 28, 2024

탁영준  
타영준

2023.11.24  
- 2024.1.28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YOUNGJUN TAK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ATELIER  
HERMÈS

CREATE

## 평행하는 세계로의 초대

안소연 / 아티스틱 디렉터

음향과 이미지가 정교하게 직조된 필름들로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 작가 탁영준의 작품세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견고할 수 있는 구조 안에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와 의미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가 틀거리로 활용하는 시청각의 세계는 주로 역사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고 향유된 클래식 세계이기에 일종의 신뢰의 초청장처럼 관객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듯하다. 바흐나 마스네의 고전음악을 배경으로 발레 훈련을 받은 숙련된 전문 댄서들이 펼치는 퍼포먼스가 필름의 주축이 되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익숙하고 애호되는 고전 장르들을 아우른 것은 하나의 작업 전략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것들이 작가가 주목하는 공간 구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유럽으로 이주한 탁영준은 아시아에서 온 여느 여행자들처럼 경외심과 호기심의 눈으로 교회 건축들을 탐사한다. 서양문명의 기원과 연관된 이 장소들은 역사와 문화 예술의 발원지 답게 장대한 건축구조는 물론, 신을 향한 인간의 기도가 빛어낸 각양각색의 이미지들이 시간의 덮개 아래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장엄한 공간이다. 특히 외부의 공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제의적 공간으로서 방문자들의 마음가짐은 물론, 옷 매무새와 태도, 하늘을 우러르거나 무릎을 꿇는 특별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곳이다. 이 장소에서 방문자들이 취하는 이례적인 행동들이 작가에게는 일종의 춤 동작처럼 보인 까닭에, 그는 여기에 새로운 안무를 덧대기로 작정한다.

귀어 정체성을 가진 작가에게 교회는 영감을 주는 장소이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가장 낮은 자들과 이방인에게 열려 있는 사랑의 공간이 보수적인 관습과 규범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열려 있으면서도 닫힌 공간. 작가가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가 내부를 배회하는 일은 개념적으로 금줄 너머의 금지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의 일종이다. 그는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공간의 역사와 실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혼종성의 흔적들을 살핀다. 교회의 전통 안팎에 스며든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관습을 들춰내려는 시도는 그에게 의문투성이인 종교적 도그마의 오류를 찾고 거기에 작은 균열을 내려는 행위가 된다.

정통성을 부여받아 익숙해진 형식을 활용하는 전략은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작업방식을 상기시킨다. 지배서사에 항상 빈틈이 있음을 간파한 곤잘레스-토레스가 영원히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다문화주의 형식 대신 미니멀리즘이라는 주류 형식을 선택했던 것 말이다. 관객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작품을 통해 그는 타자를 포용하며 주체의 분열을 드러내고자 했다. 탁영준 역시 권위를 부여받은 안정적인 장치들을 자신의 참호로 삼아 그 안에 서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교회 전통 언저리의 다양한 관습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의 파편들을 그려모아 혼돈의 세계를 펼쳐낸다.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귀어 신체의 욕망까지 투사하여 바로크적인 복잡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필름은 두 개의 영역이 서로 맞물리는 명확한 이원구조로 구성된다. 그것은 천당과 지옥, 선과 악,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처럼

## AN INVITATION TO PARALLEL WORLDS

SOYEON AHN / ARTISTIC DIRECTOR

In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South Korea, Young-jun Tak presents elaborate film works that exemplify his captivating style, characterized by the complex interweaving of narratives and contexts within a simple, solid structure. The audiovisual world that he uses as his framework is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which, verified and enjoyed by many over several centuries, serves as a trustworthy invitation for his audience. In Tak's films performances by professional dancers trained in ballet unfold, with classical music by Bach and Massenet in the background.

Tak employs universally familiar classical genres not just for strategic reasons; he primarily finds them best suited for the spatial structures that draw his attention. Having moved to Berlin and subsequently traveled around Europe, the artist explores cathedrals with awe and curiosity like other travelers from Asia. Associated with the origins of western civilization, church buildings in Europe demonstrate not only architectural grandeur but also wondrous faith embodied in all the images created over thousands of years by humans with prayers towards God. Above all, they are ritual areas distinguished from the outside world. People enter them with a certain mindset, straightening out their clothes and behavior; they may kneel and look up to the sky. These gestures appear unusual to Tak, who likens them to choreographed dance movements.

For Tak, a queer artist, the church is both a place of inspiration and a space that raises doubts. He sees that the church is an open yet closed space. It is supposedly open to all, teaching to welcome strangers and love one another, but has in actuality excluded sexual minorities due to its conservative traditions and customs. Thus, when the queer artist crosses a church building's threshold and wanders around inside, it may be considered as a conceptual evil invasion into a sacred territory. Tak explores the history and reality of the church to examine traces of cultural hybridity, to expose secular and pagan customs that have permeated the ivory tower. For him, these are attempts to find errors and make fissures in religious dogma, a system that has long intrigued him.

Tak's strategic use of familiar forms that have secured their legitimacy recall the work of Felix Gonzalez-Torres. Gonzalez-Torres understood that there are always cracks in dominant narratives, and thus employed the mainstream visual languages of minimalism, rather than of multiculturalism which would inevitably forever remain as 'Other'. Seeking to embrace the Other and reveal the split of the 'Subject', Gonzalez-Torres created works that would become naturally worn out by the audience's voluntary

기독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가장 적합한 구도이기도 하지만, 작가는 이를 한 쌍, 이중, 반복, 분신, 미러링처럼 동성애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양극단이라고 할 만큼 명확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실은 서로 평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는 두 개의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안무'라는 창의적인 신체의 개입을 통해 분리와 배제가 아니라 통합과 공존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에 도전한다.

*사랑스런 일요일 되길 바라 Wish You a Lovely Sunday* (2021)는 앞으로 펼쳐질 댄스 필름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팬데믹 기간의 산물이기도 하다. 베를린에 위치한 유서 깊은 교회와 게이 클럽 조명한 이 작품에서 두 공간은 햇살 가득한 지상과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어두운 지하 공간으로 겹쳐진다. 두 공간은 성스럽거나 그와 정반대되는 공간으로 상정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과 '일요일'이라는 연결고리로 결합된다. 안식일이기도 한 일요일에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위해 신자들은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배제된 이들은 클럽에 모이곤 하기 때문이다.

필름은 각각 한 사람의 안무가와 한 사람의 댄서가 한 때는 군중으로 붐볐지만 이제는 인적이 없는 공간을 탐색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모든 공간에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규범이 있기에 이들은 바흐의 피아노 곡에 맞춰 의뢰 받은 공간에 부합하는 안무를 일차적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작가의 의도된 지시 변경에 따라 이들은 갑작스레 서로 반대 공간에 엇갈려 배치됨으로써 안무를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들은 낯선 공간에 투입한 타자가 되지만 주체인 공간 또한 변안된 안무를 통해 새롭게 길들여지면서 상반된 두 공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필름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2023)는 이중의 구조 속에 여러 갈래의 역사적, 문화적 참조사항들을 배치해 작업의 시공간적 범위와 의미를 더욱 확장시킨 작품이다. 서양의 가장 큰 축제일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 유럽의 보수적인 남부와 개방적인 북부에서 어떻게 기념되고 소비되는지를 관찰한 지역문화에 관한 스케치이자, 전통 속에서 극단화 된 젠더의 표현양식을 재고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상반된 두 영역의 연결고리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세족례가 행해지는 성 목요일의 행렬이다.

공공장소를 가득 메우는 스펙터클한 종교 행사가 여전히 대중의 인기몰이를 하는 유럽 남부에서 부활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거대한 예수십자가상을 나르는 행렬이다. 부활절 축제를 기념하는 이날의 행렬 중 유독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일반 신자가 아닌 외인부대군단이 이를 진행하여 더욱 인기가 높다. 작가는 1920년 이래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이유와 결합하여 기독교 문화에 스며든 이들의 극도로 남성적인 신체와 군국주의적 정서를 기이하게 관찰하며 그와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행렬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세족례를 마친 깨끗한 발에서 출발한 작가의 아이디어는 영국의 문예적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이 연출한 발레 *마농*의 특이한 한 장면을 호출한다. 아베 프레보의 소설 *마농 레스코* (1731)를 발레로 변안한 3막극 중, 한 여인을 둘러싼 댄스들의 욕망을 투영한 문제의 2막 1장이 그것이다. 연출가는 대체로 발을 땅에 내딛지 않도록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지는 여성의 신체를 그려냄으로써 여성성의 극단적인 형태를 제시했다. 탁영준은 이 장면을 베를린의 게이 크루징 장소로 유명한 그루네발트 숲길에서 다섯 명의 귀어 댄서가 다른 한 명의 남성 마농 댄서를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이동시키는 행렬로 변안한다. 발레 동작의 특성상 공중에서 경직될 수밖에 없는 몸 동작은 십자가상을 연상시키며

participation. Tak likewise is not hesitant to take stable devices granted with authority and inhabit them. Tak gathers fragments of customs and stories from the edges of the church, out of which he builds a chaotic baroque world of complexity that incorporates even the uninvited desires of queer bodies.

Tak's films take on a clear binary structure in which the two worlds interlock. Such a structure is apparently suitable for critiquing the dualistic Christian worldview that divides between heaven and hell; good and evil; and sacred and secular. But the artist suggests that it also reflects homosexual attributes such as pairing, double, repetition, alter ego, and mirroring. Ultimately his films indicate that what seem to be polar opposites are in fact parallel to each other and may even be similar. By contrasting two different spaces and inserting the creative physical intervention called choreography, Tak attempts the almost impossible mission of mergence and coexistence, as opposed to separation and exclusion.

*Wish You a Lovely Sunday* (2021) is the first work in his choreography film series produced during the pandemic. Filmed in two contrasting locations in Berlin, it overlaps a historic church's sunshine-flooded above-ground space and a gay club's dark, artificially-lit underground space. Assumed to be opposite to each other, these two places are ironically connected by the notions of "love" and "Sunday". On Sunday, believers go to churches for their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while some of those excluded from the conservative Christian values gather in clubs.

The film begins with two pairs of a choreographer and a dancer exploring the interior spaces of a church and a club, respectively, both are desolate without visitors. Every space has its own norms that govern the human consciousness and behaviors, so Tak had asked them to choreograph a dance in response to a given piece of music (Bach's piano pieces) and a given space. But on the day of filming, Tak switches their designated locations as intended, asking them to change their choreography accordingly. Pushed to become a stranger in an unfamiliar space each choreographer begins to modify his/their choreography, eventually taming the space, the subject or the host 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paces gradually narrows too.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2023) is Tak's latest film unveiled here for the first time. This film also employs a dual structure, within which diverse historical and cultural references are interwoven to expand its significance and dimensional possibility. An attempt to reconsider the polarization of gender expressions within the western tradition, the film can also be seen as a sketch observation of how Easter,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festivals in Europe, is celebrated and consumed in the south and the north. What links these two strands is the procession on Maundy Thursday when Jesus washed the twelve apostles' feet as a sign of love and devotion.

In southern Europe, where spectacular religious events in public spaces still attract masses of people, the highlight of Easter festivities are the parades carrying

그로 인해 십자가 행렬의 초남성성과 마농에서의 초여성성은 상호 대비되면서도 서로를 반영하는 관계로 연결된다.

전시는 두 점의 필름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공간을 압도한 가운데 두 점의 소형 조각이 여백의 공간에 방점을 찍듯 상징적인 성소로 변모된다. 전시장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탐 Wishful* (2023)은 교회 입구의 성수반을 활용한 것으로 실제 이탈리아의 성구 제작소에서 수제작한 기물이 사용됐다. 성수 대신 작가의 젖꼭지를 본 떠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실리곤 조형물을 배치해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순교 당한 성녀들의 가슴을 쿠퍼 신체로 대체한다.

또한 *내 커다란 기대 My Big Expectation* (2022)는 독일 문화권에서 경제, 농업, 종교적인 함의를 갖는 채소인 하얀 아스파라거스를 1미터 높이의 목재 기둥 두 개로 재현한 뒤, 그중 하나에 하얀 아스파라거스의 수확 마감 시기와 탄생 축일이 같은 세례자 성 요한의 두상을 새겨 넣었다. 성자의 고통과 송고의 순간은 채소가 가진 독특한 형태로 인해 세속적인 욕망으로 변모되기도 한다. 믿음의 공간은 물론, 종교적 관습과 규범에서 문화의 다양한 혼종성을 추적하는 작가는 이러한 혼종성이야말로 교조주의를 넘어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도 적절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 제안한다.

a life-sized crucifixion statue. The most popular Easter processions take place in Spain's Andalusia, where Foreign Legion soldiers parade, which Tak sees as a theater of hypermasculine bodies and militaristic sentiments. Having learned that those "external" cultures permeated the Catholic culture, combined with the local community's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since the 1920s, Tak began to search for what kind of procession can be antithetical to the military-religious ritual.

Starting from the image of clean feet, Tak's ideation arrived at a particular scene in *Manon*, the ballet adaptation of Abbé Prévost's novel *Manon Lescaut* (1731) directed by the British choreographer Kenneth MacMillan. The choreography in *Manon's* Act 2 Scene 1 presents an extremely passive form of femininity by depicting a female body moved by men's hands so her feet hardly touch the ground. Tak recreated this choreography into a procession in which five queer dancers carry another male dancer so his feet never touch the ground in the Grunewald forest, a famous gay cruising spot in Berlin. In ballet, due to its demand of straight and long lines, the dancer's body needs to stay stiff in the air, and this image evokes the figure of the crucified Christ. As a result, Tak connects the hypermasculinity of the military Easter ritual and the hyperfemininity of the *Manon* ballet, constructing a relationship in which the two are contrasted with, and reflect, each other.

With these two films and two sculptures, Tak's solo exhibition turns Atelier Hermès into a symbolic sanctuary. While the films are exhibited at right angles to each other, dominating the exhibition space, the small sculptures are installed like dots in the negative space. At the entrance, the visitors are welcomed by *Wishful* (2023), an actual marble holy water font that can be found at church entrances. Made using objects handmade at an ecclesiastical manufacturer in Italy, however, it does not hold holy water, but silicon replicas of Tak's nipple. The artist's queer body thus replaces the breasts of martyred woman saints that have been subjected to the patriarchal gaze.

*My Big Expectation* (2022) consists of two 1-meter-high pillars that reproduce white asparagus, a vegetable with economic, agricultural and religious implications in Germany. One of them is engraved with the head of Saint John the Baptist, whose commemoration is celebrated alongside the last day of the asparagus harvest season. The saint's embodiment of suffering and sublimity is somehow perceived with secular desires because of the unique shape of the vegetable. As such, Tak explores cultural hybridity in Catholic customs and spaces, and suggests that hybridity is the possibility with which we can move beyond dogmatism and embrace social minorities properly.

##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작가와 대화

**안소연** 탁영준씨는 최근 컨템포러리 댄스 필름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안무가 필름 전개를 이끌어 가고 클래식 음악이 그 배경으로 사용됩니다. 쿠퍼 신체를 창의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구축된 댄스 퍼포먼스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탁영준** 물성을 다루는 작업을 주로 지속하면서 어떻게 가장 비물질적인 매체에 촉각적 시각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실마리를 쿠퍼 신체와 건축에서 찾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구조, 체계, 건축은 이성애 규범주의를 기반 삼아 구축됐고, 쿠퍼 신체는 그에 맞도록 자신을 각색하거나 자신에 맞도록 그 기틀을 변형시켜야 했기에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매개로 봤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예외선 복합적인 상황 고도로 정체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응답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용에서 찾았습니다. 제 필름 작품은 팬데믹의 산물이기도 한데, 당시 유럽 많은 도시가 봉쇄돼 집을 벗어날 수 없어 작업실에 갈 수도 없고 물리적 재료가 손에 닿지 않았을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래도록 즐겨봤던 여러 해외 발레단의 리허설 영상들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영상들은 카메라가 앞에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안무가와 무용가 사이의 끊임없는 지령, 대화, 번안은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 동작을 부각시켰고 이 담화와 표현은 비물질성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촉각적인 시각성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 필름 연작에는 매우 상이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그 안에서 쿠퍼 신체가 자신을 둘러싼 정황을 예리하게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무용을 통해 어떻게 양극성의 간극을 매우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믿음 작용이 어떻게 사회문화적, 정신적 구조를 구성하는지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어떤 형식을 단정 짓기보다 작품의 매체, 제작 방식,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불명료화하는 방식을 제 비평의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신체를 개입시켜 수작업이 가미된 제작 기법이나 흔히 '눈으로 만진다'고 말하는 촉각적 시각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불안전성, 몰입적 친밀성, 혼성적 중간성 등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이 필름 연작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안** 움직임의 주체와 그들의 행위는 장소와 상호작용하며 긴밀히 연관됩니다. 필름에 드러나는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는 어떤 장소들에 이끌리며 건축적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탁** 그저 오롯이 존재하는 독립적인 물성보다 그것에서 비롯된 혹은 그것에 투사된 이야기, 전후사정, 역사는 물론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식 작용, 믿음의 형태, 몸의 태도 등을 주목해 왔고, 이와 더불어 드나들며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일부 건축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작업에 주축이

##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Conversation with the Artist

**Soyeon Ahn** You recently started producing the choreography film series. The scenario is mainly developed by professional dancers' movements and choreography accompanied with classical music. I wonder why you chose another distinguishing artistic genre of dance performance as a creative way of presenting queer bodies.

**Young-jun Tak** My practice was heavily focused on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My big concern for working with films was how to infuse the haptic visuality stressed in the materialized works into this immaterial medium, and I found a clue in queer bodies and architecture. Most structures, systems and architecture in human history have been built upon heteronormativity, which forces queer bodies either to adjust themselves for the given form or to transform it to their likings. In this regard, I consider queer bodies as the most suitable mediator that is able to react to surroundings with such sensitivity and delicacy. Furthermore, in my opinion, it is choreography that enables optimized visualization of the refined bodily response for viewers.

The choreography film series is one of my pandemic outcomes: during the lockdown in Berlin, I could not reach my materials, which resulted in binge watching numerous ballet rehearsal videos on international ballet companies' YouTube channels. The well-edited videos are of course made in front of the facing camera, but regardless the communication between a choreographer and dancers was truly fascinating as all instructions, discussions and adaptations revealed bodies, touches and movements more and more. I found these dialogues and expressions the most potential filmic haptic visuality. Considering them all, the film series is structured by two disparate conditions, and it presents how choreography with sensitive queer bodies fills the gap between the binary.

**Ahn** The dancers and their bodily movements are very closely associated with space in your films. The locations for the film shoot are far more than just physical spaces. What kinds of spaces attract you, and how did you develop your interest in architecture?

**Tak** Just contentless independent materiality does not interest me, but stories, contexts and history from/ toward objects as well as cognition, beliefs and attitudes around them intrigue me much more. Moreover, certain architectural forms, where our mindset and behaviors rapidly change following entry or exit, attract me. In that sense, Christianity and churches are some of my main

되는 주제 중 하나가 기독교 문화와 교회입니다. 수세기를 거쳐 정형화된 다소 보수적인 이 건축물의 구조는 세계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어렴풋하게나마 각인돼 있고, 따라서 무색무취의 공간에 건축적 구성 요소나 오브제가 일부라도 적재적소 배치된 상태를 마주했을 때 이에 얽힌 총체적인 열개를 그 무맥락적 공간 전반에 쉬이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 구조가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건축의 구성 요소는 고개를 치켜 들어 우러러보거나, 손을 포개거나 가슴에 얹거나, 무릎을 굽히고 꿇어 가까이가는 등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감각을 총동원하고 자극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대상과 자신을 연계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태도를 자아내도록 하고, 저는 이를 제 작품과 관계 맺는 관객의 태도에 배어들게 하고자 조각 작품을 매우 높이 혹은 낮게 설치한다거나 성구(聖具)를 모티프로 삼는 등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필름에서도 종교 건축이나 의례가 많이 다뤄지는데, 이 체계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 전해져 온 유구한 문화와 관습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미묘한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안** 이번 아틀리에 에르메스 전시에서는 시리즈 중 완성된 두 점의 필름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2021년에 완성한 *사랑스런 일요일 퇴길 바라 Wish You a Lovely Sunday* (2021)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탁** 안무가 한 명과 무용가 한 명으로 구성된 팀을 두 개 꾸려 각 팀에 바흐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두 곡을 하나씩 배정했습니다. 모두 베를린에 모인 뒤 한 팀은 교회에서, 다른 한 팀은 쿼어 클럽에서 그 곡에 맞춰 새 안무를 창작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며칠 간의 연습을 마치고 안무가 완성된 뒤, 필름 촬영 당일 두 팀에 사전 고지 없이 촬영 장소를 뒤바꿨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교회에서 짜인 안무를 쿼어 클럽에 맞게, 또 그 반대로 각색하는 고군분투의 현장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각 팀은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고, 기존의 안무를 재편하고, 마침내 번안된 안무를 선보이면서 결국 쿼어 신체와 무용을 통해 교회와 쿼어 클럽을 하나로 엮어 갑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전략으로 두 공간을 엮었지만, 교회와 쿼어 클럽은 방문자가 궁극적으로 심신의 안녕을 위해 그곳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를 위해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의례처럼 정신적, 신체적 태도를 일상과 달리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종의 동질감을 가진 무리를 한데 모은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매우 흡사한 공간으로 봤습니다.

**안** 이 작품은 2022년 제16회 리옹 비엔날레에 출품되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작품이 설치된 공간이 또 하나의 층위로 개입되며 작품과 상호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 제 작품이 상영된 건물은 리옹 기메 박물관으로, 19세기 프랑스 출신 사업가이자 수집가인 에밀 기메가 그러모은 동양 종교 유물 및 미술품을 전시했다가 스케이트장으로, 자연사 박물관으로 변모한 뒤 2007년 폐쇄됐고 15년간 처치곤란으로 방치돼 있던 도심 속 거대한 유흥이었습니다. 당시 큐레이터 샘 바더윌과 킬 펠라트는 이 음산한 신고전주의 건축물의 사체 속으로 탐방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건물의 옆에 난 작은 문을 비엔날레 입구로 삼았고, 여러 방과 설비를 지나 본래 입구를 거쳐 중앙실로 들어서는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이 중 박물관의 본래 입구에 제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 커다란 원형 홀은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양식의 대형 기둥 8개가 대담히 에워싸고 있고, 이 공간을

subject matters.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at least vaguely familiar with church architecture that has been sharply defined through many centuries, therefore, it is almost only churches that we can conceptually turn an entire contextless space into when several architectural elements or objects are properly situated. The architectural design of churches encourages us to look high up, bring hands together and get closer to things by bending or kneeling. This is a remarkable way of willingly connecting oneself with things, and in order to associate this active engagement with the understanding of my works, for instance, I install my sculptures in higher or lower positions and refer to many church objects and furniture. My films also deal with churches or Christian rituals. They are embedded in our customs and culture rather than limited to a religion, and they stimulate any sort of psychological, emotional reactions, no matter if one is a believer or not.

**Ahn** In this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in Seoul, the two films from the series will be presented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he second film has its world premiere here. Please introduce the first film, *Wish You a Lovely Sunday* (2021).

**Tak** For this film, I organized two queer groups, each with a choreographer and a dancer, and commissioned choreography with two different duet piano pieces by Bach. Each team created a new dance at a church and a queer club in Berlin, respectively. After days of rehearsal and completion of the work, their designated venues were swapped without any prior notice on the filming day. Therefore, this film is a short documentary about their sensual discovery of a new space, reprogram of the original choreography and presentation of a new variation, and by doing so the queer bodies and choreography eventually aim to combine the two charged venues. The selection of a church and a queer club is doubtlessly a strategic decision, however, I believe that, in spite of seemingly contrasting functionalities for starkly different purposes, both spaces share intriguing similarities as they all require specific rituals, behavioral norms and attitudes closely linked to the space and its role. Both venues could be said to be fundamentally community-oriented spaces, which seek to offer comfort and welfare for either the visitors' mind or body.

**Ahn** The first film was presented at the 16th Lyon Biennale in 2022, and it was indeed well received. The particular architectural feature of the exhibition venue also contributed to your installation, and the space and the work great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ak** The film was exhibited at Guimet Museum in Lyon where Émile Étienne Guimet, a French industrialist, traveler and connoisseur of the 19th century, displayed numerous religious collections from Asia before it turned into a skating rink and then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The museum closed in 2007, and the empty building remained as a gigantic ghost in the city center for the following fifteen years. The co-curators of the Biennale, 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 substituted a small side entry door of the

마치 팡테옹(만신전) 삼아 중앙에 약 5미터 너비의 가벽을 세워 필름을 상영했습니다. 필름 속 안무가, 무용가가 촬영 당시 뒤바뀐 공간을 새로이 탐색해야 했던 것처럼 비엔날레 관객 역시 이 웅장하고 허름한 잔재를 탐험하면서 멀찍이 흘러나오는 바흐의 건반, 빨간색, 금색, 갈색으로 물든 영역으로 젖어드는 상황이 구현됐습니다.

**안** 이번 전시의 타이틀 롤인 신작 필름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2023)는 전작에 비해 로케이션이 더욱 확장되었고 역사적, 문화적인 참조사항에 더 깊이 개입됩니다.

**탁** 신작 필름의 절반은 저에게 익숙한 베를린의 쿼어 환경에서 촬영됐고, 나머지 절반은 외연을 넓혀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로 향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은 유럽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얼마나 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됐고, 그 중에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기러지는 부활절에 주목했습니다. 베를린의 부활절은 이 도시의 유별난 성격에 따라 성스러운 기념일과 가장 대치되는 거나한 쿼어 섹스 파티 주간으로 변모해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면 유럽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는 공공장소를 가득 메우는 매우 스펙터클한 종교 의례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큰 관광객 물이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모 마리아의 애환을 되새기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열리고, 특히 지극히 화려하고 거대한 성좌에 올려진 예수 십자가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짊어지고 고행하듯 나르는 행렬이 큰 인기입니다. 보통 이 의례는 신심 깊은 일반 신도나 종교계 인사가 수행하기 마련인데 안달루시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독특하게도 스페인 외인부대 군인들이 그 역할을 도맡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말라가에서 열리는 세족 목요일 행진은 종교, 정치, 문화계 인사가 합세해 전사의 죽음을 찬양하는 죽음은 *나의 남자친구*라는 군가를 합창하는 와중에 근육질의 군인들이 반나체의 예수 십자가상을 어깨에 매고, 걷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광경을 펼쳐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장악력을 가졌던 초남성성에 대한 때아닌 대중적 열광이 다소 소름끼치기도 했고 이에 압도당하기도 했으며, 따라서 이 전형적인 젠더 표현 양식의 양극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대척점은 영국 출신 무용가,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이 영국 왕립발레단 예술감독 재직 시절 제작했던 발레 *마농*(1974)의 2막 1장 중 한 부분으로, 여주인공 마농이 무대 바닥에 발을 거의 대지 않은 채 여러 남성 무용수의 손길에 떠맡겨 오래도록 공중을 유흥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유연하면서도 경직된 발레 동작의 특성상 때때로 예수 십자가상을 연상케 하는 순간이 도출되는 이 이색적인 안무는 전형적인 여성성을 찬양하는 표현 양식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역사적 반복을 거쳐 굳혀진 두 젠더의 시각화 방식 사이에서 보여지는 명료한 거리감과 모호한 유사성을 관찰하면서 그 중간 지대를 쿼어 신체의 무용으로 메움으로써 다시 한번 융화를 시도했습니다.

신작 필름을 위해 메인 댄서를 겸하는 바베이도스계 미국 출신 안무가 자말 칼렌더와 함께 이 두 의례 및 안무를 감안하면서 총 6명의 남성 동성애자 무용가를 위한 새 안무를 구성했고, 며칠 간의 실내 연습 끝에 필름 촬영 당일 베를린 내 거대한 숲이면서 유명한 게이 크루징 장소이기도 한 그루네발트 수풀길에서 장소에 맞게 안무를 재창안해 보였습니다. 모두 고전 발레 무용수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면서 컨템포러리 댄스를 겸하는 무용가 6인 중 한 명이 마농의 역할을

exhibition for the grand main entrance of the museum in order to stage an eerie atmosphere of entering the dead body of the neoclassical void. This led the viewers to arrive in the main entrance later and then the central hall, and my film was projected onto a 5 meters wide free-standing wall in the monumental main entrance hall surrounded by eight Ionic columns, which I wanted to set as a pantheon. The viewers, as if they became the protagonists of my film who had to explore the new dancing venue, were from far lured by Bach's piano melody and vivid color pool soaked in red, gold and brown.

**Ahn** The new film,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2023) that carries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covers a wider selection of shoot locations and deals with deeper historical, cultural studies, compared to the previous film.

**Tak** Half of the new work was shot in Berlin's queer environment that I am familiar with, and the other half was filmed in Andalusia, Spain. After moving to Europe, the core of the pervasive Christian culture, I as a South Korean was surprised about all national holidays and commemorative days being related to Christianity. Among them, Christmas is very much understandable, but Easter felt very new to me. The Holy Week leading to Easter Sunday in Berlin has been converted into a huge queer sex party venue full of tourists. Meanwhile, southern Europe such as Spain and Italy attracts another type of visitors who come to see and participate in spectacular public religious festivities. Cities in the region become crowded with special events that resonate the death and revival of Jesus Christ and the sorrow of the Virgin Mary, and it is especially popular to be part of days and nights-long processions carrying massive thrones of the two Christian icons. This street ritual is usually carried out by organizers and sincere believers, however, in several Andalusian cities the carriers are Spanish Legion soldiers. The most outstanding event is *traslado*, the Transfer of Christ, in Malaga on Maundy Thursday where muscular Spanish Legion soldiers carry over their shoulders, march with and lift up the life-sized statue of the half-naked crucified Jesus while loudly singing out the military song *el Novio de la Muerte*, the Boyfriend of Death, together with all attendees including religious, political, cultural figures and ordinary citizens. I was shocked and overwhelmed by the public enthusiasm for the old fashioned hypermasculinity, hence, I wanted to look into the typical presentation of binary genders.

The counterpart is an excerpt from Act 2 Scene 1 of the ballet *Manon* (1974) choreographed by Kenneth MacMillan at The Royal Ballet in London. It is characterized with the eponymous female dancer carried and worshipped by numerous male dancers to praise for her feminine beauty. The flexible but occasionally stiff ballet postures sometimes resemble the crucifix, and I consider this scene one of the most active forms of admiring traditional femininity. My observation on the visual presentations of the two genders, which are remarkable for both the vivid contrast and the subtle similarity, led to the daring merging of the polarized conditions through the queer bodies and choreography once again.

대체했고,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남성 마농의 벗은 발이 단 한 순간도 땅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름은 부활절 기간 세족 목요일에 안달루시아의 말라가 및 알하우린 데 라 토레 지역에서 진행된 스페인 외인부대의 의례를 촬영한 영상과 베를린 그루네발트에서 카메라를 위해 (혹은 어딘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이를 위해) 선보인 6인의 무용을 번갈아 가며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필름 *사랑스런 일요일 되길 바라*에서 교회 및 쿼어 클럽의 건축 요소, 무용가의 몸동작 등이 서로 조응하며 어우러지듯이 두 번째 필름에서도 종교 의례와 쿼어 신체의 안무가 언거꾸 교차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안** 부활절 직전 세족 목요일에 십자가상을 운반하며 행진하는 스페인 외인부대 군인들의 신체, 젠더, 행동양식이 세월에 따라 변모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가는 거기서 어떤 흥미로운 점을 주목했나요?

**탁** 이 의례는 종교와 군사 및 정치 사이의 관계, 이슬람 문화권과 얽힌 지역적 특색, 식민 제국주의의 유산 등 복잡한 역사의 실타레가 직조한 결과물입니다. 스페인 외인부대는 1920년대 스페인과 모로코 내 스페인 식민지에서 벌어진 전쟁의 산물로, 이 부활절 의례는 당시 이 전쟁의 희생자, 부상자를 돌봤던 안달루시아 일대 교회 단체와의 관계에서 비롯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지중해를 낀 북아프리카 곳곳에 외인부대 주둔지를 두고 있고, 전쟁 당시의 공생애 대한 담례로 부활절 의례에 참여하면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젠더 연구는 이 기이한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군사적 초남성성이 탐탁지 않게 여겼던 예수의 “여성적” 죽음을 수용했는지 분석합니다. 안달루시아 일대는 성직자를 필두로 한 엘리트 “교회 종교”와 이에 반감을 가진 일반 노동자 중심의 “거리 종교”로 대치된 상황을 봉합하려 했고, 군사적 애국주의는 추상적 신앙보다 대중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저항 끝에 피 뿌린 전투적 죽음은 예수의 순종적 죽음을 숭앙하는 것이 꺾히려웠고, 결국 예수의 “조롱적” 죽음이 신학적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결한 죽음으로 칠해지면서 당위성을 얻었습니다.

그 마초적 금지는 스페인 외인부대 특유의 외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부대의 행진은 전 세계 군대 중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경보와 같은 보폭과 보속을 자랑하고, 수염을 길러 다듬거나 타투를 과시하거나 제복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가슴팍 단추를 열어 근육을 내보이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상을 어깨에 엮고, 나르고, 들어 올리면서 부각되는 그들의 근육질 신체와 그 위에서 기러지는 고문당한 예수의 여린 사체는 시각적으로 매우 이색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이 광경은 스페인 게이 커뮤니티의 시선을 통해 전복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욕망 어린 응시 속에서 전통적 초남성성은 그 권위를 상실하고 그 빈자리에는 의도치 않은 가치가 부여됩니다.

스페인 기독교 문화를 풀뿌리에서 지탱하면서 이 의례를 지속해 온 여러 형제회는 신앙 집단을 넘어서 남성만의 배타적 사교 단체였고, 용맹한 외인부대의 부활절 의례 역시 매우 오랫동안 여성 군인은 참가할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현재 밤새도록 며칠간 벌어지는 대규모 거리 행진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참가자를 볼 수 있지만 예수상을 운반하는 세족 목요일 의례만큼은 여전히 남성의 전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안달루시아 지역을 다스린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기독교 의례가 긴 세월 유지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규모처럼 확장되고 휘황찬란해진 시기는 오히려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직후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For this film, I commissioned the Barbadian-American choreographer Jamal Callender to develop a choreography for six male homosexual dancers, taking both the ritual and the ballet into account. After days of rehearsals and completion of the work, on the shooting day they adjusted and performed it according to the film site in the forest Grunewald in Berlin, which is also a famous gay cruising area. All of the dancers studied classical ballet and have performed contemporary dance, and one of them played the role of the male Manon. The only restriction given to them was that the male Manon should not touch his feet on the ground during the entire choreography. The film alternates the visuals of the Maundy Thursday ritual shot in Malaga and Alhaurin de la Torre and the six dancers' choreography for the camera (and some hidden eyes behind trees). As the first film *Wish You a Lovely Sunday* shows the visual dialogue between dancing moments and architectural features, the new film reveals surprising overlaps between the two distinctive bodily movements.

**Ahn** Some studies examined how the appearance, gender and attitude of the Spanish Legion soldiers for the Maundy Thursday ritual have changed. What did you find interesting in this?

**Tak** This particular ritual is a historical product derived fro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ligion and the military, the Islamic influence and the residue of colonial imperialism. The Spanish Legion was formed to fight in the Rif War in northern Morocco in the 1920s, and the ritual started as the Legion's thankful return to Andalusian confraternities that took care of wounded soldiers. Spain still maintains several regiments in northern Africa along the Mediterranea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eligious associations continues today. Some gender studies investigated this special connection and analyzed how militant hypermasculinity accepted the unimpressive “feminine” death of Jesus. In Andalusia, the division between the clergy-oriented elite “church religion” and the laborer-led “street religion” was concerned, and for the former the patriotism, in comparison to abstract religious beliefs, seemed uncomplicated to appeal to the latter. But, the vigorous death resulting from fierce combats and resistances was reluctant to be associated with the “obedient” death of Jesus. In the end, the “mocked” death of Jesus could be compensated by being theoretically related to the heroic, noble death in the ancient Greco-Roman context.

The masculine pride is evident from the Legion soldiers' appearance. They boast the world's fastest marching pace. They are allowed to groom their beards and mustaches. They are confident to show off their tattoos and muscles under rolled up sleeves and unbuttoned shirts. Their muscles look more exaggerated whenever they lift the crucifix, and the visual contrast between their bodies and the tortured slender body of Jesus cannot be avoided in our sight. It is not a joke that this macho spectacle is subversively viewed by many Spanish gay men's sight, and at this moment the conventional authority of hypermasculinity is replaced by unintended desire.

형제회는 지역 인구나 신자가 줄면서 위기를 맞을 뻔했지만 모두 유럽 문화기관으로 등록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거대한 지원금을 기반으로 팽창했다는 점은 전통, 역사, 정치의 역동적인 판도 속에서 파생된 젠더 표현 방식의 양상을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안** 첫 번째 필름은 ‘일요일’이란 특별한 시간을 공유하긴 하지만 사회 통념상 양극단에 있는 두 장소를 배경으로 무용수들이 원래의 안무 계획과 정반대 되는 공간에 적응하면서 양극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필름에서는 초남성성과 초여성성이 대응하지만, 반복되는 교차편집 속에서 둘 사이의 어떤 일치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필름에서 매번 매우 상이한 공간 조건을 대비시키면서 그것을 하나로 엮어보려는 시도는 작가의 어떤 비전을 반영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탁** 종교나 젠더 모두 인간의 소소한 믿음이 점차 정제돼 거시적 체계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종종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지식을 초월해 인간사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간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제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 말이 국제적 ‘탈진실 정치학’으로 점철된 시기여서 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꼭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전반이 거짓, 허구의 각색과 진실화의 정도를 달리하며 요동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그 믿음의 피력이 가열 차졌고 매 극단을 내달리는 부류들이 전 지구적으로 가시화되며 분열의 고착은 이제 기반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체를 두리번거리며 작업하다 보면 그런 구분을 일삼는 주체인 인체만큼 서로 제각각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믿음에 따라 그 구성 요소들에 울타리를 지어가며 자기 입맛에 맞는 동질감을 조성하고 저 경계 너머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작품마다 자기모순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것만큼 실로 인간적인 게 없지 않을까요?

**안** 그동안 작업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슈는 기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믿음의 체계 또는 그것을 실천하는 관습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민한 관습을 촉발시킨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탁** 2015년 베를린으로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생긴 공백의 기간동안 제가 베를린으로 가져가 계속 곱씹어 볼 수 있을 고민거리 하나를 찾아 좀 더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사건은 2014년 제 생애 첫 쿼어 퍼레이드가 열렸던 서울 신촌에서 벌어졌고, 소위 반동성애, 탈동성애 보수 개신교 단체가 현장에 나타나 행사를 훼방하며 몇 시간동안 이어진 긴장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던 혐오 단체를 눈앞에 마주했던 당황스러움은 이들이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기도, 제 눈을 노려보며 계속 무어라 중얼거리던 입술, 바닥에 누워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모습 등 충격적인 전경을 보며 끊어올랐던 분노와 슬픔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그후 매년 이어지고 있고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 노력, 에너지를 쏟아가며 성소수자를 대대적으로 폄훼하려는 이들의 논리 아닌 논리가 궁극했고, 그래서 2015년의 가을, 겨울 동안 주요 기독교 단체, 일명 탈동성애 센터 등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메시지가 담긴 출력물을 그려모았습니다.

**안** 그 경험은 2020년 제11회 베를린 비엔날레에 출품된 *굴레/Chained* (2020)에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초기 작업이자 향후 일련의 조각 작품들과 연관되는 이 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Confraternities were not only grassroots of Spanish Christian culture but also exclusive men-only social clubs, and the Maundy Thursday ritual was overall the privilege of male soldiers. Today, participants in the hours-long street processions carrying the huge thrones can be men and women of all ages, however, the Transfer of Christ on Maundy Thursday has to be handled by men. This religious tradition could be preserved as a counteraction against the Islamic regimes prevalent in Andalusia from the 8th to the 15th century, however, its quickest momentum was surprisingly when Spain joined the European Union. Regional confraternities faced a crisis due to the declining number of devoted local believers, but despite that they could receive governmental aid after registering themselves as the European cultural legacy. As such, it is truly fascinating to examine how the gender presentation has been influenced by the dynamics of tradition, history and politics.

**Ahn** The first film, although sharing the same time on “Sunday”, features two socially polarized venues, and it shows how the gap between them gradually narrows through dancers' choreographic adaptation at the swapped shoot location. In the second film, hypermasculinity and hyperfemininity confront each other, however, the delicately edited alternating visuals uncover a certain degree of unity between them. I would like to ask what you envision by trying to contrast very different conditions and then to combine them.

**Tak** Religion and gender were triggered by individual beliefs and each eventually developed into a complex set of ideas and systems. I find such beliefs the most mighty human power, often overturning historical facts and scientific knowledge. It is partly because the period that I started my art practice around 2015 and 2016 was labeled as the post-truth politics, but I suppose that our history has been like that and just weighed up how much true or false things are. We currently feel more overwhelmed by this phenomenon because the fragmentation fueled by social media forces us to take a position in any polarized category and such tense conflicts become almost fundamental. Ironically, the more I work with our bodies, the more I am reassured about how diverse and different our bodily features are. However, we still want to categorize similar aspects in a few limited groups according to our beliefs and likings and point the finger at others outside the boundary. Therefore, I try to infuse complex self-contradiction into a single body of work. Such a quality is one of the most human characteristics. On a somewhat related note, I like religious visual arts and architecture. I am delighted to visit churches in a new city and enjoy Christian art while criticizing certain Christian conservatism that negatively impacts societal issues. This might be one of conflicting contrasts within me. It is also almost funny that church visuals offered numerous naked body parts in spite of stricter, more rigid lifestyles centuries ago. Some artists managed to encode their queerness into the inevitable given format of Christian art, and I am silently thrilled when I could link myself to such discoveries.

**탁** 당시 이 혐오 덩어리 프로파간다 출력물을 모았을 때는 이에 관한 글을 쓰고자 했던 동기가 더 컸습니다. 이 종이 뭉텅이는 결국 베를린에 와서 제 첫 조각 작품이 됐습니다. *구원 Salvation* (2016)은 이 전단지 일체를 고화질 스캔하고 흑백 출력한 뒤 잘게 조각내 이탈리아 성상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등신대 크기의 성모 마리아 조각상 표면을 완전히 뒤덮은 콜라주 조각 작품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구분을 떠나서 기독교라는 좀더 큰 종교의 가부장적 틀 안에서 역시 타자화됐던 여성의 입지와 연대하는 관점에서 이 도상을 처음 택했습니다.

이후 2020년 베를린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 공간 중 하나인 KW 현대미술 인스티튜트 중앙홀에 10개의 예수 십자가상을 같은 방식으로 콜라주한 대형 조각 설치 작품 *굴레*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이 상징적 전시 공간은 거대한 예배당으로 꾸러졌고, 그 가운데 놓인 10개의 팔 벌린 예수상은 서로의 손목을 포갠 채 지름 4미터에 가까운 커다란 원형을 그리는 모양새로 배열했습니다. 이 구성은 보수 개신교 단체 구성원들이 매해 한국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쿼어 퍼레이드를 막고자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해 행렬 앞에 몸을 던져 바닥에 드러눕던 모습에서 착안했습니다. 예수의 양팔은 형벌로 힘겹게 벌어졌지만 모든 이를 사랑으로 감싸 안겠다는 인류애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정작 그의 가르침을 가장 신실히 따른다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가 찍어 낸 메시지를 그의 신체 위에 엮자 그 역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을 몰아 쳤을 때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이가 이끈 사이비 종교 단체가 확산 진원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뒤이어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전염병이 재확산되자 여러 종교 관련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게이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콜라주한 12개의 아기 예수 조각 작품 수많은 *기적 Miracles* (2021)을 제작해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제9회 베를린 마스터즈 전시에 선보였습니다.

이 일련의 조각 작품은 아직 한국에는 전시한 적이 없으며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곳곳에서 전시됐는데, 콜라주에 사용된 전단지, 책자가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써 있다는 점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백 장이 넘는, 혐오가 넘실대는 종이 낱장을 계속 조각내는 동안 그 위에 얹혀진 수많은 글과 이미지는 모국어의 특성상 읽지 않아도 그저 바라봄과 동시에 제 뇌리에 각인됐고, 몇 주를 반복해서 봐도 불연듯 끓어오르는 소모적 분노,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구사자라면 여전히 콜라주된 종이 조각에서 많은 문구를 포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방법론적으로 이 해악한 선전물을 분절시키고 그 짜임새를 마구 뒤섞어 혐오의 문법을 무력화, 희석화하고자 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이 해악한 선전물을 분절시키고 그 짜임새를 마구 뒤섞어 혐오의 문법을 무력화, 희석화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력을 허용하는 종이 특유의 섬세한 내구성은 합성수지 혹은 목재로 된 조각상 본체의 표면을 매우 얇고 조밀하게 뒤덮으면서 이 신체 조각상들의 새로운 피부가 됐고, 이내 성상들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가뒀 버립니다.

**안** 이러한 혼종성의 발견은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쿼어의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할지요?

**탁** 우리가 속한 모든 문화는 어떤 측면에서든 혼종성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담긴 역사의 흔적과 결을 들춰보기보다 지금 당장 앞에 목도한 결과의 단순한 표면만 보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배타적 단일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쿼어의 존재 역시 언제 호명되고 기록되고 보여지는지가 관건일 뿐

**Ahn** Christianity and related issues have been very visible in your work so far, but I assume you question human belief systems and their practice in general. I know there was a particular trigger for your sensitivity in this.

**Tak** When I prepared to move to Berlin in 2015, I started researching what had bothered me for a long. The incident occurred at my first ever Pride Parade in Seoul in 2014 where groups of homophobic Christian extremists disrupted the event for more than a few hours. I was stunned by their appearance that I had only heard about, and this soon shifted to depression and rage when I witnessed their shrieking prayer toward the sky, their hostile glare with mumbling lips and their collective lament. Since then, their homophobic gatherings have become more diversified and even professionalized, for instance, for issues of the declining population, the dissolving family value, the potential HIV outbreak and so forth. I could simply no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eager to invest their time and effort to hate others, so I went to visit such Christian organizations and the so-called “conversion therapy” centers to collect all kinds of their propaganda materials.

**Ahn** That experience is directly rendered in your sculptural installation *Chained* (2020), exhibited at the 11th Berlin Biennale in 2020.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arly works and soon developed into a sculptural series.

**Tak** I planned to write something about the hatred-filled flyers and publications, and then the idea eventually changed to my first sculpture. *Salvation* (2016) is a life-sized Virgin Mary statue collaged with black and white paper cuts from high quality copies of the propaganda materials. Apart fro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I approached this religious icon in order to stand in solidarity with women who were problematically presented in Christianity in general. Afterwards, I exhibited *Chained* (2020), another sculptural installation from the series, at the main hall of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during Berlin Biennale in 2020. This space turned into a chapel, and ten statues of the crucified Jesus were arranged in a circle about 4 meters in diameter by overlapping their wrists. This configuration was inspired by the human barricade that the Christian fanatics created by locking themselves arm-in-arm and lying down in front of annual Pride Parades in South Korea. The open arms of Jesus are caused by the punishment, but this also symbolizes his message of unconditional embracing love. However, as soon as messages of his fanatic followers were simply laid over his body, the irony reveals itself. Furthermore, when the Covid-19 first outbreak in South Korea in 2020, one of the biggest Christian sects, which was founded by a self-claimed reincarnated Jesus leader, was sensationally focused as an epicenter of the spread. The following outbreak occurred in one of the largest clusters of late night clubs in Seoul, and Christian news platforms viciously stigmatized the gay community and blamed the youth. Observing the witch-hunt, I produced twelve, almost identical, collaged baby Jesus sculptures, *Miracles* (2021),

자연의 역사를 통틀어 편재, 상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이야기, 신화, 역사는 제 작품의 첫 번째 재료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그 지난 날을 반복하기도, 부정하기도, 극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전자와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면면의 사례가 제 작품의 두 번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만으로 어떤 대안적 현실을 제안하는 종합적인 결과가 제시된다고 봅니다. 평행한 또 하나의, 복수의 세계랄까요. 제 작품이 그 세계를 구성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안** 아뜰리에 에르메스 전시는 두 점의 필름과 두 점의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두 개의 대형 스크린이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가운데 두 점의 소형 조각이 여백의 공간에 방점을 찍듯 전시장을 상징적인 성소로 변모시킵니다. 전시장의 공간 구성이 관객들에게 어떤 시각적, 신체적 경험을 제시하기를 바랬는지요?

**탁** 개인전이나 제 작품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를 꾸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공간을 저만의 성소로 변환시키는 구조를 기획합니다. 앞서 일찍이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의 인식 속에 각인된 교회의 구조를 빌어 관객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경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여지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면에 배치된 성수대를 활용한 작품은 단숨에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설치된 마치 중세의 목재 성인 조각상 같은 작품 역시 이 공간의 결을 달리 하는 데 좀 더 확신을 줍니다. 두 조각 작품은 모두 그 정교함 때문에 미시적인 시각적 접근을 자극합니다. 반면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며 바닥과 천장을 가득 메운 5~6미터 너비의 스크린에 상영돼 한 눈에 들어올 두 영상 작품은 거시적인 경험을 증폭시키며, 전자 필름의 실내 건축과 신작 필름의 실외 환경 속에 바로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완급 작용을 통해 관객이 알게 모르게 자신과 제 작품 간의 신체적 경험을 증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전시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탐 Wishful* (2023)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탁** 이 젓꼭지 조각 작품 연작은 성수 *Holy Water* (2022)에서 시작했습니다. 통상 교회 입구 옆 벽면에 박혀 있는 대리석 성수대를 활용했으며, 이탈리아 성구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노란 베로나산 대리석재 성수대 안에 제 한쪽 가슴을 본뜬 극사실적 실리콘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어 그 가운데 솟은 젓꼭지가 도드라집니다. 여느 때처럼 여러 성화, 성상을 감상하던 중 여성 성인이 순례 당한 방식이 남성 성인과 달리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부각시킨 경우가 심심찮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특히 시칠리아 카타니아의 성 아가타는 양 가슴이 무쇠 집게발로 찢겨 나가는 고문을 당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성인을 기리는 축일이 되면 그 상황을 어린 아이들이 재연하는 공연이나 절단된 여성의 가슴이 쟁반 위에 올려진 모양을 한 케이크 등이 도시를 뒤덮습니다. 이 순교 장면을 담은 여러 미술품에 강조된 여성의 육감적 신체와 이를 에워싸고 집게발을 들이치는 남성들의 모습은 종교적 건전함을 넘어서 가부장적 욕망이 섞인 이성애자 남성의 권위적 시선이 빚어낸 풍경입니다. 남성 성인의 순교 방식 중에는 남성 신체를 성적으로 부각시킨 경우가 전무합니다. 물론 성 세바스찬의 경우 그 장면이 에로틱하게 묘사돼 게이 아이콘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추후 해석 방식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전혀 흥미롭지 않을 남성의 젓꼭지를 대신 주제 삼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역시

and presented it at the 9th Berlin Masters for young artists.

I have not exhibited this sculptural series in South Korea yet but in Germany, France and Denmark, and the Korean language being dominant in the propaganda materials did not really matter. While preparing the papers for the collage process, all the aggressive messages and images were immediately inscribed in my eyes as they are written in my mother tongue. This generated emotional turbulence ranging from anger to depression, and I wanted to dissolve such negative power by reshuffling the small pieces of papers. The subtle tolerance to tension in papers helped to create a new skin for the entire surface of the sculptural icons, and their original peaceful messages are confined within it.

**Ahn** Can such historical recognition of hybridity positively impact the current stance of queerness in our society and culture?

**Tak** I think hybridity is partly embedded in almost every culture throughout its history, but this can be easily disregarded when one is so inclined to pursue exclusive unitarity for certain desired benefits. Likewise, queerness has been doubtlessly omnipresent, and it is a matter of when and how it is summoned and recognized. In this regard, the first material (or thesis) of my practice is stories, mythologies and history in the past. As the present and the future repeat, deny or overcome the past, the second material (or antithesis) is such anecdotes and examples that often clash with the former. Therefore, a combination of the two results in synthetic resolution that offers alternative, parallel or multiplied realities. I wish my work could bring the viewers to them, and the experience makes their engagement with the (whatever) reality more meaningful.

**Ahn** This exhibition is composed of two films and two sculptures. The two large screens dominate the space, and the two small sculptures turn it into a symbolic sanctuary. What do you want this arrangement to help the viewers' visual, physical experience?

**Tak** I try to transform an exhibition space to my own shrine whenever I have an opportunity for my solo presentation. As I mentioned above, I can borrow the viewers' perception about the church architecture and let them project it onto my space, which could encourage their immersive experience with my work. This exhibition is my first solo presentation in South Korea, so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my little artistic trajectory. The entry sculpture that greets the viewers is formed in a marble holy water font that can be seen at any church entrance wall, and this already brings a different atmosphere in the exhibition. Another wooden sculpture nearby has a head of a saint as if it popped out of a mediaeval Christian art, and this even more assures the viewers about the shifted tone of the space. Both the sculptures are highly detailed, and this brings the viewers' gaze very closely, whereas the films immensely extend the range of vision due to free standing screening walls in a 5

욕망의 대상이겠지요. 이처럼 개인의 욕망과 바람이 결국 우리의 관점, 인식 체계, 표현 방식을 결정짓는 양상에 착안해, 이 조각 작품 연작을 이어갔고, 이후 소절을 짜는데 사용했던 나즈막한 목재 의자 위에 봉헌 양초 두 개와 그 틀 안에 파라핀 대신 위와 같은 제 젓꼭지 조형물이 담긴 대체물 세 개가 올려진 작품 *하나 더 One More Please* (2022)로 이어졌습니다.

**안** *내 커다란 기대 My Big Expectation* (2022)는 독일에서 경제, 농업, 종교적으로 복합적인 함의를 갖는 채소 하얀 아스파라거스를 1미터 높이의 기둥 두개로 재현한 것입니다. 숨은 의미들을 공유해 주세요.

**탁** 독일인이 유별나게 사랑하는 채소인 하얀 아스파라거스, 즉 독일어로 '슈파겔'을 나무로 조각해 그 상단 끝부분을 세례자 성 요한의 얼굴로 변형시킨 이 조각 작품 연작은 *철 지난 Out of Season* (2021)에서 시작했습니다. 독일 슈퍼마켓에서는 보통 아스파라거스 여러 개를 도톰한 고무 밴드로 묶어 판매하는데, 이 고무 밴드를 철재 고리로 변경하고 그 안에 두 개의 하얀 아스파라거스만 남은 채 벽에 걸려 있어, 적정 눈높이에 맞으면 라틴 십자가 모양을 드러냅니다. 전통적으로 하얀 아스파라거스는 매년 봄철 4월경 수확을 시작했는데 모든 농부가 6월 24일 수확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이 날은 전통적 절기상 하지, 기독교 기념일상 세례자 성 요한의 축일입니다. 농경 사회의 달력과 기독교 문화가 교묘히 융합된 것으로 보이는 이 특이성을 살려, 바이에른 주의 한 마을에서 17세기부터 목재 성상만을 조각해 온 장인 가문의 손에 맡겨 나무 조각상이 탄생했습니다. 순례 당하는 성인 특유의 얼굴 표정, 즉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는 애매모호한 표정을 띤 세례자 성 요한의 얼굴을 한 하얀 아스파라거스 조각상 두 개가 고리 안에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성인의 얼굴은 여러 전통 성화를 참조했습니다. '슈파겔'은 그 모양새가 남근과 유사해 일부 독일 방언에서는 남자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런터라 두 성인의 표정이 더욱 복합적으로 읽힙니다.

이 채소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 문화권 안에서 워낙 수요가 크다보니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농업을 넘어 여러 영역에 파장을 끼칩니다. 하얀 아스파라거스는 섭취시 칼로리가 적어 나치 정권, 동독 정권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작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를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흙으로 모두 뒤덮어야 하고, 조식이 물러 쉽게 상처 입기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확돼야 하는 탓에 들인 노동력에 비해 얻는 이득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동독 가정의 뒤뜰에서 감시를 피해 몰래 길러지다가 통일 후 번창하며 지금까지 전국적 사랑을 받는 이 채소는 팬데믹 때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했는데, 국경 봉쇄가 잦아서 이 고단한 수확 작업을 좀더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동남부 유럽 노동력을 유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경제력이 약한 베를린에 살다보면 잠시 잊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독일은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권이고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과 그 수하 국민들이 함께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야하기에 지금은 대외적으로 조금이라도 국가주의로 비칠 수 있는 애국심을 표출하는 데 거의 알려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에 본인의 믿음과 긍지를 투사해야 하고, 독일에서는 그 투사체가 일상의 소소한 대상으로 번져나간 것은 아닐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현상들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제 거주지가 된

to 6 meters width that prominently occupy the space. This hopefully leads the viewers' immersive, spatial experience within the films'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Ahn** The very first work that greets the visitors is the sculpture *Wishful* (2023).

**Tak** The series of the nipple sculptures started with *Holy Water* (2022). Its main body is a marble font that is usually permanently installed into an entrance wall at churches. For the sculpture, the marble structure was commissioned to an Italian church object producer, and in the Veronese yellow marble font a hyper realistic silicon cast of my own nipple is sitting in. I was intrigued by depictions of female martyrs in historical paintings as their body parts were somewhat sexualized unlike male counterparts. The peculiar case is Saint Agatha of Sicily. Her breasts were tortured and torn off with metal tongs. Until today, her martyrdom has been annually celebrated by re-enacting the scene with children's theatrical play and sharing desserts shaped in her severed breasts. Some paintings about this dramatic scene exaggerate her breasts surrounded by viciously smiling men holding aggressive pincers. One cannot deny the impact of patriarchal, hegemonic, hetero-macho desire on this. It is extremely rare to find an example of sexualized male martyrdom—well, Saint Sebastian as a gay icon is about later interpretation and depiction rather than the way of being martyred. Thus, I propose a male nipple as an alternative which may not be interesting to the traditional gaze but might be attractive to some others. This also proves how personal desire and wish could determine our collective perspective, cognition and expression. I continued the series with *One More Please* (2022) that consists of two votive candles and three hyperrealistic nipple casts in the same candle containers displayed onto a French antique milking stool.

**Ahn** The sculpture *My Big Expectation* (2022) depicts white asparagus, enlarged to 1 meter and made in wood, which implies its agricultural, economic and religious complexity in Germany. Please elaborate on hidden codes.

**Tak** The first sculpture of the white asparagus series is *Out of Season* (2021), and the work presents two asparagus with each of their tips metamorphosed to a head of Saint John the Baptist. This vegetable is extraordinarily beloved by Germans. It is usually displayed at supermarkets as a bundle tightened by a rubber band. In my sculpture, the band is altered to a metal ring, and only two asparagus are left. When it is hung on a wall, one can discover a Latin cross shape from its configuration. The white asparagus, *spargel* in German, was traditionally harvested from any spring time around April but oddly until 24th June, which is the traditional summer solstice and the feast day of Saint John the Baptist. I commissioned the wooden components to a carving master family that has worked on religious iconographies since the 17th century in Bavaria. The faces of the saint in my sculpture have the typical ambiguous expression of agony and ecstasy in the dying moment

이곳에서 생활하다보니 저 역시 이 식문화에 젖어들었고, 그래서 이 채소에 얽힌 여러 상징을 궁극의 숭상물인 십자가 형태로 변환하는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추후에는 베를린 첫 개인전에서 독일의 자랑스런, 그러나 역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애증의 기반시설 고속도로 '아우토헌'을 기리는 성소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안** 탁영준씨는 작가가 되기 전에 국내에서 미술 월간지 기자로 일했습니다. 글을 쓰고 정보를 수집하던 일은 작가로서의 현재의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탁** 월간지 기자, 편집자의 작업 환경은 돌이켜 보면 작품 제작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 발현, 연구, 자료 수집, 시각적 배열, 인쇄를 거쳐 손에 뽕 책을 냄새 맡고, 만지고, 보고 읽고, 되씹는 전개가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에 일찍 일을 시작했기에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대한 제 견해가 좀더 견고해지면서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 조각을 꿰어 내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답답하기도 했고, 또 시각화와 물질화에 점점 더 희열을 느꼈던 터라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글을 쓰던 손을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필름 작업은 시리즈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간의 이야기들은 더욱 확장되겠지요. 다음 작업이 이미 기획 단계에 있다면 정보를 조금 공개해 주세요. 3편을 기대하겠습니다.

**탁** 작품 제목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제 큰 목표는 1편의 '일요일', 2편의 '목요일', 3편의 '월요일'에 이어 한 주를 모두 채워보려 합니다. 3편은 더욱 외연이 확장돼 노르웨이 소설가 라르스 뮈팅의 작품 *자매의 종* (2019)에 영향을 받아 노르웨이 산골의 중세 교회와 스페인 사막에 버려진 비행기에서 춤을 출 예정입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of saints, and their intimacy in the metal ring suggests another relationship of the rather phallic figures.

While living in this progressive, poor city of Berlin, one sometimes forgets that it is deeply rooted in Christianity and the capital of Europe's biggest economy. The unforgivable historical sin under Nazism created the current allergic reaction against any overly nationalistic, patriotic stance in this country. However, human nature constantly prompts us to project our belief and pride onto something, and I suppose that in Germany the target has shifted to mundane daily objects. After eight years in Berlin, I also became one of the *spargel* connoisseurs every spring, and I wanted to enhance the praise for the vegetable to an ultimate worship in the shape of the cross. Later, I also set up a church of German autobahn at my first solo exhibition in Berlin and brought complicated, ambivalent feelings around the sociocultural symbolic infrastructure together.

**Ahn** You used to work as an editor of a monthly art magazine in South Korea. The writing and research skills must have somehow benefited your current art practice.

**Tak** Reflecting upon my previous career, I find the editorial procedure very similar to the art-making. Back then, editors of the magazine controlled and oversaw the entire process of production from developing ideas to researching, collecting resources, writing, designing page layouts and even supervising the print quality, and then we touched, smelt, looked through, read carefully and reviewed the ephemeral publication as a realized, formed materiality. I started working as an intern editor in my early twenties, and year by year I felt a little frustrated at dealing with mostly other people's thoughts and ideas, not my own. I became more and more excited about visualizing and materializing something, so I just simply changed the way of using my hands from writing to making.

**Ahn** Your film-making will continue as a series. Its stories will tell about broader time and space. Please let us have a glimpse of the next. Looking forward to the third film.

**Tak** The titles of the films may already hint at what I strive for, and following the "Sunday" in the first, the "Thursday" in the second and the upcoming "Monday" in the third I ambitiously try to fill the whole week days with this series. The third film expands outwards even more: the structure is partly inspired by the acclaimed Norwegian author Lars Mytting's novel *The Bell in the Lake* (2019), and we will dance at a mediaeval church in a remote Norwegian village and also at an abandoned aircraft in a Spanish desert. It is all about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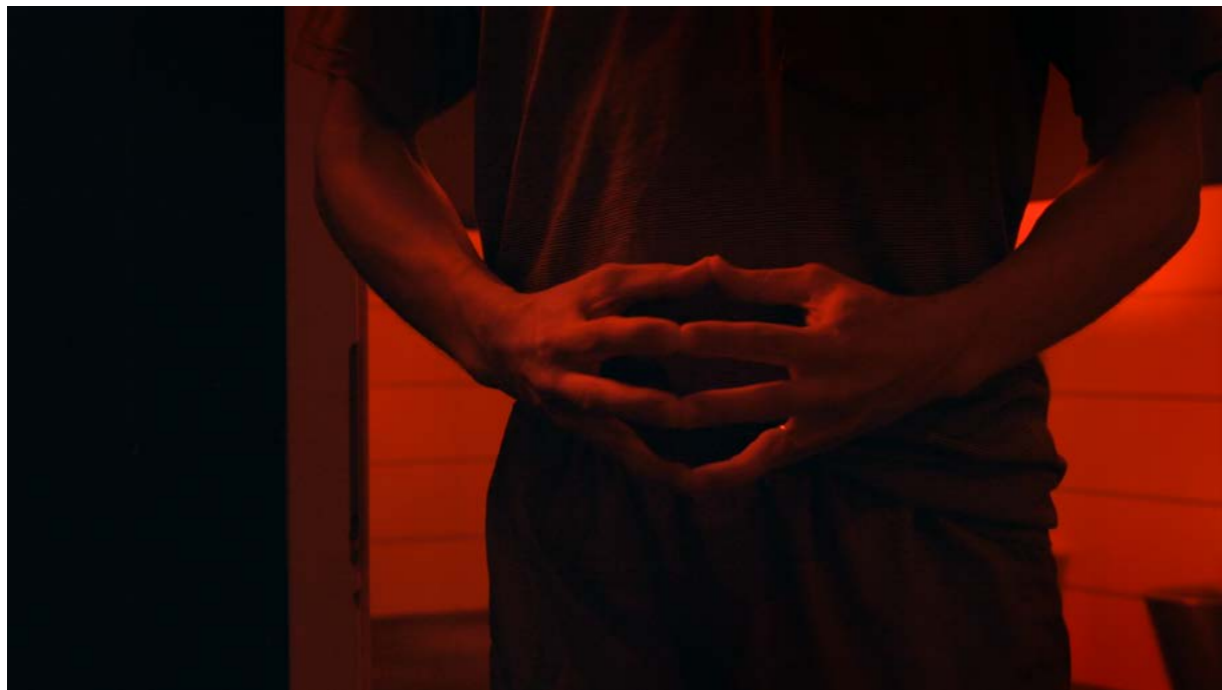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사랑스런 일요일 되길 바라(스틸 이미지)  
Wish You a Lovely Sunday, 2021 (still image)



사랑스런 일요일 되길 바라(스틸 이미지)  
Wish You a Lovely Sunday, 2021 (still image)



내 커다란 기대  
My Big Expectation, 2022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of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스틸 이미지)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2023 (still image)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 Wish You a Lovely Sunday

Director and Producer	Young-jun Tak
Dancer Choreographer	Yi-Chi Lee, Daniel Norgren-Jensen Jee Chan, Liam Warren
Line Producer	Elsa Triquet-Rey
Director of Photography Camera Operator Gaffer Sound Recordist	Jubal Battisti Pippa Samaya Alex DePew Robert Klemm
Editor Sound Mixer Colorist Subtitles and Trailer Editor	Clémentine Decremps Guy Henderson Sergej Jurisdizkij Théo Perrot
Locations	Kirche am Südstern, Berlin Schwuz, Berlin
Music	Lucas & Arthur Jussen—J.S. Bach: "Was mir behagt, ist nur die muntre Jagd" Cantata, BWV 208 (arr. Mary Howe for two pianos): 9. Schafe können sicher weiden (P) 2019 Molto Piano VOF, courtesy of Universal Music GmbH Lucas & Arthur Jussen—J.S. Bach: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BWV 106 (Transcr. for Piano Four Hands by György Kurtág): 2a.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P) 2019 Molto Piano VOF, courtesy of Universal Music GmbH
Photographs at Schwuz	Jürgen Baldiga, "Self-portrait" Jürgen Baldiga, "Melitta Sundström", 1988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Berlin Masters Fondation Burger Collection Center Stage
Legal Advice	Kanzlei Alexandra Hölzer
Special Thanks	Nikola Andjelic, Xení Ya Ang, Matthias Arndt, Maria Bartau, Max Burger, Monique Burger, Ingar Dragset, Michael Elmgreen, Popo Fan, Margo Luras, Cristian Merean, Yui Mikami, Agustín Pérez Rubio, Philip Preussen, Hans Joachim Richter-Rose, Alexander Shchurenkov, Ingo Spanka, Shang-Chi Sun, Harumi Terayama, Anthony Vouardoux, Woori Wang

###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Director and Producer	Young-jun Tak
Choreographer and Lead Dancer	Jamal Callender
Dancers and Voices	Miguel Ángel Collado Yi-Chi Lee Daniel Norgren-Jensen Liam Michael Scullion Aaron Vazquez Such
Line Producer	Elsa Triquet-Rey
Director of Photography	Jubal Battisti
<u>Berlin-Grunewald</u> Camera Operator Sound Recordist Boom Operator Production Assistants	Matthias Pöttker Aude Langlois Taiga Trigo Yui Mikami, Théo Perrot
<u>Málaga and Alhaurín de la Torre</u> Camera Operator Sound Recordist Fixer and Location Manager	Israel Fdez Luis Jiménez Barroso Alex Esteve
Editor Assistant Editor and Trailer Editor Sound Mixer Colorist	Clémentine Decremps Théo Perrot Edgardo Gomez Sergej Jurisdizkij
Music	Orchestra of the Royal Opera House, Covent Garden, Richard Bonyngé "Massenet: Manon Ballet — Arranged and orchestrated by Leighton Lucas with the collaboration of Hilda Gaunt / Act 2: Scene 1 — Conclusion" (P) 1987 Decca Music Group Limited mit freundlicher Genehmigung der Universal Music GmbH
Supported by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edienboard Berlin-Brandenburg Burger Collection Die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Stiftung Kunstfonds NEUSTARTplus-Stipendium
Insurance	Howden & Caninberg, Potsdam
Film Rental	UFO Filmgerät, Berlin Alquila Visual, Málaga
Special Thanks	Sam Bardaouil, Tenzing Barshee, Maria Bartau, Max Burger, Monique Burger, Ingar Dragset, Michael Elmgreen, Till Fellrath, Simon Fujiwara, Jonathan Kluth, Margo Luras, MOAMOA Café & koreanische Esskultur, Lisa Long, Agustín Pérez Rubio, Pontificia y Real Congregación del Santísimo Cristo de la Buena Muerte y Ánimas y Nuestra Señora de la Soledad Coronada (Mena) in Málaga, Real Antigua y Venerable Cofradía del Santísimo Cristo de la Vera Cruz y Nuestra Señora de la Soledad, Elias Redstone, Tom Woo

Gefördert durch NEUSTARTplus-Stipendium der Stiftung Kunstfonds /  
NEUSTART KULTUR der BKM

This work wa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b>탁영준(1989년생)</b>
2015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및 비교문화전공 학사, 서울, 한국
	<b>개인전</b>
2023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한국 “Double Feature: Young-jun Tak”, 율리야 슈도헛 파운데이션, 뒤셀도르프 및 베를린, 독일 “Street Religion”, 펠리스 앤터프라이즈, 코펜하겐, 덴마크 “Wish You a Lovely Sunday”, 바노스 콘스트, 크니스링게, 스웨덴 “Doubt”, 오버가든, 코펜하겐, 덴마크
2022	“Wohin?”, 에프레미디스, 베를린, 독일 “Der Garten”, SOX, 베를린, 독일
2021	“Wish You a Lovely Sunday”, 프래그먼트, 모스크바, 러시아
	<b>단체전</b>
2023	“Dancing About Architecture”, 하이 라인, 뉴욕, 미국 제5회 시카고 건축 비엔날레, 시카고, 미국 “Boobs in the Arts—Fe:male Bodies in Pictorial History”, 디트리히 & 쉬레흐트림, 베를린, 독일 “Paperworks”, 하이덴하임 미술관, 하이덴하임 독일
2022	“Clubs 2”, 살라 아폴로, 바르셀로나, 스페인 제16회 리옹 비엔날레, 기메 박물관, 리옹, 프랑스 “Finger Bang”, 페로탱, 파리, 프랑스 “Forming Communities: Berliner Wege”, KINDL 현대미술센터, 베를린, 독일 “Megan Dominescu, Lea Draeger, Nika Fontaine, Aviva Silverman, Young-jun Tak”, 마우어, 쾰른, 독일
2021	“It’s Just a Phase”, K-U-K, 트른헤임, 노르웨이 제9회 베를린 마스터즈, 빌헬름 할렌, 베를린 마스터즈 파운데이션, 베를린, 독일 “Erschreckend aktuell / Frighteningly topical”, 가브리엘레 젠 갤러리, 빈, 오스트리아 “LETTER (to us)”, 빌보드 프로젝트, 엘젠코, 베를린, 독일 “Round 4”, 아트 포 블랙 라이브즈, 온라인
2020	“Locked in”, 브란덴부르크 콘스트페어라인, 포츠담, 독일 제11회 베를린 비엔날레, KW 현대미술 인스티튜트, 베를린, 독일 “Szene Berlin”, 할 아트 파운데이션, 데르네부르크, 독일
2019	“Show Me Your Selfie”, 디스쿠르스, 베를린, 독일 “PRO-TEST”,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 서울, 한국 “Show Me Your Selfie”,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2018	“Schrein der Freundschaft”, 브란덴부르크 콘스트페어라인, 포츠담, 독일 “A Strong Desire”, PS120, 베를린, 독일
2017	제15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스탄불 모던, 이스탄불, 터키
2016	“The Others”, 퀸 갤러리, 베를린, 독일
	<b>수상 및 지원</b>
2023	실험 영화 제작 지원, 메디엔보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 노이스타트폴러스, 작가 작업 지원, 슈티프퉁 콘스트폰즈, 본, 독일
2021	TOY 베를린 마스터즈 상, 베를린 마스터즈 파운데이션, 버거 컬렉션, 홍콩 신진 예술인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2020	국제교류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2017	국제교류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b>Young-jun Tak (b.1989)</b>
2015	B.A.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ross-Cultural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b>Solo Exhibitions</b>
2023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Atelier Hermès, Seoul, South Korea “Double Feature: Young-jun Tak”, Julia Stoschek Foundation, Dusseldorf, Berlin, Germany “Street Religion”, palace enterprise, Copenhagen, Denmark “Wish You a Lovely Sunday”, Wanås Konst, Knislinge, Sweden “Doubt”, O—Overgaden, Copenhagen, Denmark
2022	“Wohin?”, Efremidis, Berlin, Germany “Der Garten”, SOX, Berlin, Germany
2021	“Wish You a Lovely Sunday”, Fragment, Moscow, Russia
	<b>Group Exhibitions</b>
2023	“Dancing About Architecture”, High Line, New York, United States 5th Chicago Architecture Biennial, Chicago, United States “Boobs in the Arts—Fe:male Bodies in Pictorial History”, Dittrich & Schlechtriem, Berlin, Germany “Paperworks”, Kunstmuseum Heidenheim / Museum Schloss Hellenstein, Germany
2022	“Clubs 2”, Sala Apolo, Barcelona, Spain 16th Lyon Biennale, Guimet Museum, Lyon, France “Finger Bang”, Perrotin, Paris, France “Forming Communities: Berliner Wege”, KINDL Centre for Contemporary Art, Berlin, Germany “Megan Dominescu, Lea Draeger, Nika Fontaine, Aviva Silverman, Young-jun Tak”, Mauer, Cologne, Germany
2021	“It’s Just a Phase”, Kjøpmannsgata Ung Kunst, Trondheim, Norway 9th Berlin Masters, Wilhelm Hallen, Berlin Masters Foundation, Berlin, Germany “Erschreckend aktuell / Frighteningly topical”, Gabriele Senn Galerie, Vienna, Austria “LETTER (to us)”, a billboard project at Elsenbrücke, Berlin, Germany “Round 4”, Art for Black Lives, Online
2020	“Locked in”, BKV Potsdam, Germany 11th Berlin Biennale,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Berlin, Germany “Szene Berlin”, Hall Art Foundation / Schloss Derneburg Museum, Derneburg, Germany
2019	“Show Me Your Selfie”, Diskurs, Berlin, Germany “PRO-TEST”, Seoul Museum of Art, SeMA Bunker, Seoul, South Korea “Show Me Your Selfie”, Aram Art Museum, Goyang, South Korea
2018	“Schrein der Freundschaft”, BKV Potsdam, Germany “A Strong Desire”, PS120, Berlin, Germany
2017	15th Istanbul Biennial, Istanbul Modern, Istanbul, Turkey
2016	“The Others”, König Galerie, Berlin, Germany
	<b>Award and Grants</b>
2023	Experimental Filmförderung, Medienboard Berlin-Brandenburg, Germany NEUSTARTplus-Stipendium, Stiftung Kunstfonds, NEUSTART KULTUR der BKM, Bonn, Germany
2021	TOY Berlin Masters Award, Berlin Masters Foundation, Burger Collection, Hong Kong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for Young Artists, Arts Council Korea, Seoul, South Korea
2020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rts Council Korea, Seoul, South Korea
2017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rts Council Korea, Seoul,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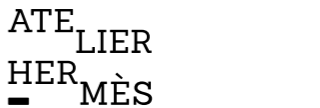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주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Anais KOENIG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Managing Director: Sung Hun HAN  
Communication Director: In Hae YEO  
Sr. Art & Window Manager: Hyejo YUM  
Communication Coordinator: Soo Min CHO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 3015 3248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매주 수요일 및 신정(1월 1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e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Soyeon AHN  
Graphic Designer: Yesung ENG  
Translator: Soojin LEE, Young-jun TAK  
Exhibition Photographer: Sangtae KIM

**ATELIER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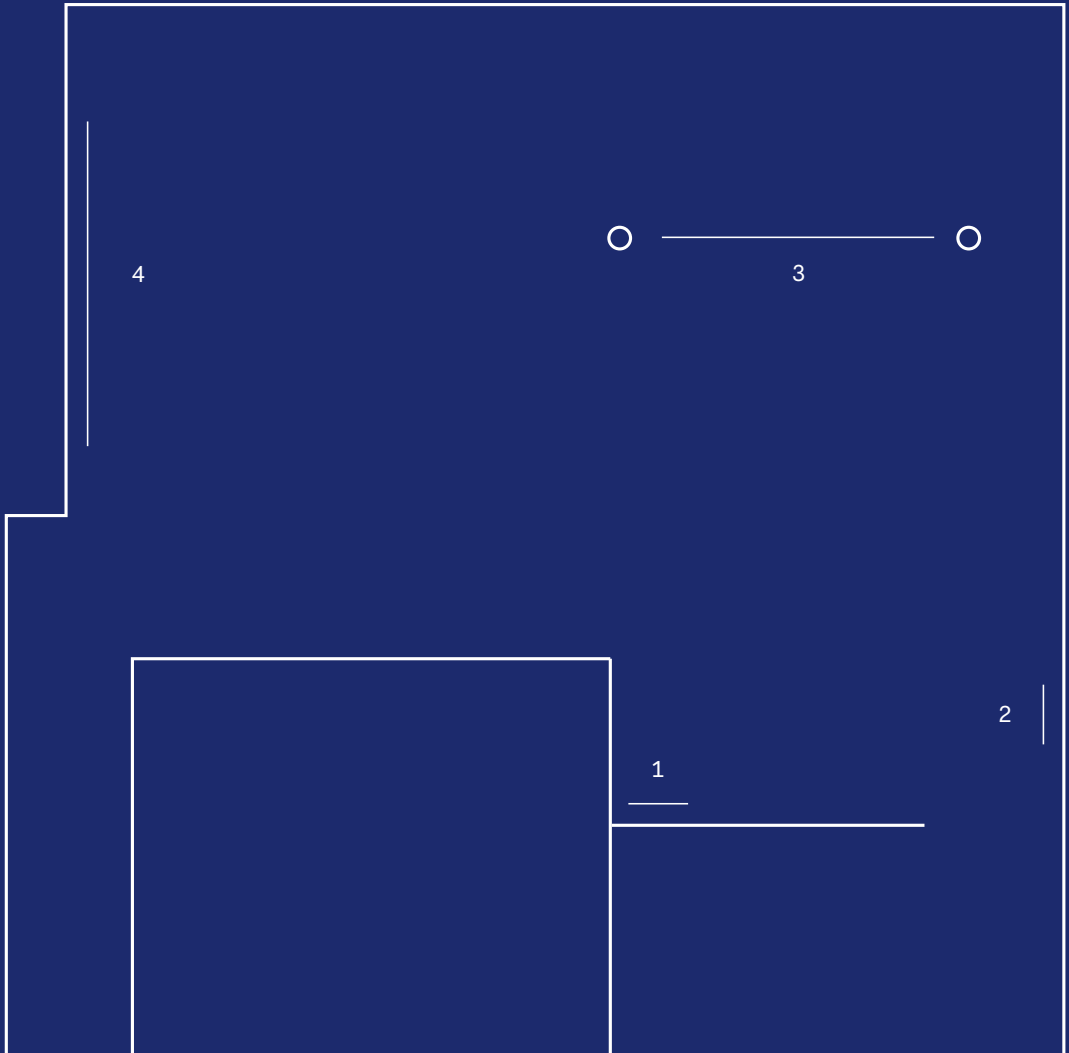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and Tokyo.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T. 02 3015 3248  
Opening hours: 11am–7pm  
Closed on Wednesdays and New Year’s Day



1 내 커다란 기대

린덴 목재, 녹슨 철, 밀랍, 오일, 고무

*My Big Expectation*

Lime wood, rusty metal, beeswax, oil, rubber

95.5 × 12 × 11.3 cm, 92 × 12.5 × 11 cm, 2022

3 사랑스런 일요일 되길 바라

단체널 HD 영상,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8분 45초

*Wish You a Lovely Sunday*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stereo sound,

18 minutes 45 seconds, 2021

2 탐

대리석, 실리콘, 유채

*Wishful*

Marble, silicon, oil paint, 9 × 21 × 22.5 cm, 2023

4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단체널 4K 영상, 컬러, 4.1 사운드, 18분 53초

*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

Single channel 4K video, color, 4.1 sound,

18 minutes 53 seconds, 2023